

☆ 서정문학을 알면 ...

서정문학이 어떤 뜻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안다면 ...

늘 우리를 괴롭혔던 고전시가 공부와 현대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해결된다.....

모든 시에는 반드시 시적화자와 대상이 존재한다. 그래서 시적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을 찾고 화자는 그것에 대해 자기의 느낌을 적은 글..... 그래서 시공부는 외울 필요가 없는 것이고 ... 그렇게 외우면서 공부하는 것이 제일 불쌍한 것이지...

오늘도 공부 방법을 바꾸지 않았지 ?

그렇게 한 주 가고 본인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가짜 최면에 빠져.... 어찌보면 또 한 달 지나가고....또 한 달... 그럴수록 너 겁나 잤아?.... 그렇지...!!

자신에게 솔직해봐.....작년하고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나아지겠니 ? 바뀔거라면 작년에 이미 바뀌고도 남지 않았을까 ? 남다른 내일을 꿈꾸면서 남다른 오늘을 보내지 않는데.... 왜 너는 교재, 학원, 집, 선생님, 독서실 그런 세상 탓만 할거니 ?

안녕하세요. [김현종 T입니다.]

오늘은 [⑥ 번째] 시 문학 분석으로 또 다가갑니다.

이 시문학 분석은 역시 1등급 학생들은 패스하시고
어설픈 2등급과 3-5등급 이하 친구들을 위한 것입니다.

반드시 ⑥번째 칼럼을 읽기 전에 ①~⑤번 칼럼을 먼저 읽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보고 오셔야 효과가 큼니다. !!

이 칼럼은 대치동 제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재수생들 요청으로
복습용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수업버전으로 하겠습니다.

흥미와 이해를 위해 다소 과장과 비약이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자, 시(서정문학)를 만나면 뭘 찾는다 ?

= 네 선생님 당연히 대상을 찾습니다.

= 좋아.... 크게 따라한다 !!!! 시를 만나면 ? 뭘 찾는다 ?.....

= 네, 선생님 !! 바로 시적화자가 바라다 보는 대상을 찾습니다.

= 그것만으로 되겠나 ???

= 아닙니다. 각 줄마다 숨겨진 대상에 대한 정서와 시적화자의 태도를 찾아
야 합니다.

= 오케이.....바로 그거면 무조건 통과야..... 이제 가보자고.....!!

인터넷 수능 B형 시부터 해보자고....

조금전 대상을 찾는다.... 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시문학 행동강령입니다.

오늘은 EBS 인터넷 수능 시문학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어떻게 공부하는 지에 대해 알려드렸으니 학생과의 대화체 설명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작품 분석 후에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혹시라도 A형 준비중인 학생이라면 더더욱 이 파일을 보셔야 합니다.
눈치 빠른 친구들은 예년 기출과 달라진 6월 평가원을 보시면 시 작품 수가 한 작품에서 3작품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B형처럼 공부하셔야 합니다. 단지 해석이 현대국어로 국역될 뿐입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다음은 꼭 외치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시문학 공부를 암기위주로 했다.... = 바보처럼 공부했군...
2. 시를 스스로 분석하기 보다는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주입식으로 필기하고 밑줄 긋고... 일제 강점기, 60년대 현대 산업화 시대, 저항시인, 지식인의 고뇌, 소외된 민중, 80년대 군부독재... 이렇게 공부한 것이 시문학 답게 공부한 시 공부라 생각했다....
= 역시 바보처럼 공부했군...
3. 한 편의 시를 배우면서 그 시인과 연계된 다른 작품들의 특징속에서 또는 타 시인의 유사한 작품에서 억지로 선생님이 특별히 강조하는 특정 지식을 배우면서 뿌듯해 했다면 = 끝까지 바보처럼 공부했군...

오늘은 ===== 이상, [거울], 박남수, [거울]

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이오

시적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은 ? === 그냥 거울 속 세상을 바라봅니다. 제발 부탁인데 거울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대부분의 학교, 학원 선생님들은 거울(단절과 소통....이런 식으로 수업합니다..... 이런 분에게 수업들은 학생들을 그 다음해에 제가 치료합니다. 참 힘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대로 공부해 봅시다. 제대로라는 말을 꺼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거울 속 세상이 참 조용한가 봅니다. 특별한 것은 없지만 조용한 것에 대해 약간은 감정표출이 있습니다.

거울속에도내게귀가있소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가두개나있소

대상이 다시 거울 속 자기 자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에게 느끼는 정서가 아주 뚜렷하게 노출되었습니다. 바로 딱하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불쌍하고 연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대상을 자기 자신으로 꺼내면 항상 동반되는 단어가 자조적, 반성, 성찰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들은 대상이 자기 자신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친구를 대신해서 반성할 수는 없겠죠 ?...) 말도 못 알아 듣는 불쌍한 귀를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

거울속의나는왼손잡이오

내악수를받을줄모르는—악수를모르는왼손잡이오

버릇이 없는 건지 아니면 소통을 안하려 하는 건지 몰라도 내 자신은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딱 막힌 대상입니다. (여기서 정서는 답답함이죠... 숨겨져 있지만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친구에게 악수를 내밀었는데 그 친구가 이 손이 뭐지?... 이런 식이라면 답답하겠죠? ... 아니면 소통을 안하려고 한다면 흔히 싸가지가 없는 것이고...) 일단 대상에 대한 정서는 답답함이 더 타당할 거 같습니다.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못하는구료마는

거울이아니었던들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보기만이라도했겠소

대상인 내 자신을 만지고 싶지만 거울이 현실의 나와 거울속의 나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거울은 대상이 아니니까 그리 신경쓰지 마세요... 나중에 물어봐야 현실과 소통을 단절시키는 존재다... 정도밖에는 물어볼게 없습니다....이해되시죠 ?)

또 만질 수는 없지만 거울 때문에 나를 만나라도 볼 수 있었다는 만족감 ?... 그정도의 느낌 ?.... 하지만 대상에 대해 특별히 노출시키는 정서는 없습니다.

나는지금거울을안가졌소마는거울속에는늘거울속의내가있소

잘은모르지만외로된사업에골몰할게요

나는 지금 거울을 보지 않지만 거기에는 현실의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불쌍한 내 자신이 항상 있다는 말... 결국 현실의 내 말을 알아듣

지 못하는 내 자신은 항상 자기 기준으로 살고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자기만의 기준으로 어떤 일을 꾸미고 있을 것어요. 즉 현실의 나는 하지 않고 골몰하지 않는 일이나 사업을 불쌍하고 딱한 거울속의 내 자신은 분명 하고 있을 것어요....

=== 그런 그에게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내 얘기를 못 알아 듣는 아주 불쌍하고 딱한 내 자신이 바로 그 거울 속에 있소... 즉, 내가 거울을 볼 때는 거울속의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엇(자기만의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른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반대요마는

또꽤답았소

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고진찰할수없으니떡섭섭하오

거울속의 내 자신은 현실의 나의 얘기를 못 알아듣는 반대의 모습이지만 한편으로는 닳은 면도 있소.... 왜 현실의 나와는 다르게 외로된 사업(자기만의 사업, 다른 방향의 사업)에 집중하는지 진단할 수 없어서 떡 섭섭하오... === 자기 자신에 대한 정서가 나왔습니다. 섭섭함 이죠. 왜 섭섭하냐면... 내 자신인데도 현실의 내가 내 자신 속에 있는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자기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을 더 이상 알 수 없으니까... 안타깝다...이정도... 이해되지죠 ?....

혹시나 싶어 한마디 합니다. 이상의 거울이라는 작품을 거울과 현대인의 자아 분열, 심화되어 가는 자아분열로 인한 고뇌, ‘거울 밖의 나’와 ‘거울 속의 나’의 분열을 통한 식민지 지식인의 자아분열을 표상한다,

거울 밖의 자아- 현실속의(자아분열적인) 자아-이상의 현재모습-세속적 자아, 거울안의 자아-본질적인 자아-이상의 본래의 모습(무의식적인 자아)-양심적 자아 라고 가르치는 수업이 있다면 빨리 탈출하세요...그런 주입식 교육은 빨리 벗어날수록 성적향상이 빠릅니다.

또 다른 주입식 교육....

이 시는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의 분열과 갈등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 썩판 처음 보는 시에서 여러분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수능을 믿으세요... 수능 출제자는 절대로 이런 것을 출제하지 않습니다. 걱정마세요.... 그 교수님들을 믿고 평가단 160여명을 믿으세요. =====

‘거울 밖의 나’와 ‘거울 속의 나’는 거울을 통해 만날 수 있지만 ‘거울 밖의 나’는 ‘거울 속의 나’와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고, 그 실체를 만져볼 수도 없다. 결국 자신의 참모습인 ‘내면적 자아’를 인식할 수 없는 현실 속의 자아는 섭섭함과 소외감을 느끼고 고뇌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 우리 어디를 봐도 거울 속 자신이 참모습이라는 구절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외워야 하고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고 강요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능 출제 교수님들은 그런 우리의 고충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특정 학파의 해석이나 자습서만을 읽어주는 선생님의 생각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잡고 시를 썼던 시적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문제에 최대한 출제했고, 그것을 믿은 학생들은 결국 좋은 점수를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교수님과 평가단을 믿어야 합니다. 23년 동안 변함없는 진리였습니다. ===

결국 이 시는 모순적 속성을 지닌 '거울'을 통해 현대인의 불안 의식을 표현한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아 분열 양상과 현대인의 불안 심리를 드러낸 작품이다.

==== 선생님도 이 설명을 읽었을 때 거울이 왜 모순이지?... 또 어디에 현대인의 불안이 나타나지?... 자아 분열은 그렇다 치고 현대인의 불안심리 ??????????....==== 그래서 내 식대로 이해하기로 했다..... ==

이 글의 대상은 거울 속에 자기 자신이고 그런 자기 자신에게 느끼는 정서는 불쌍하고 연민을 느끼며, 나와는 다르게 살아가는 내 자신을 진단(태도), 진찰(태도)할 수 없어서 조금은 안타까운 정서를 드러낸 시....선생님은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으로 갑니다.

박남수 [거울]

살아 있는 얼굴을
죽음의 굳은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울의 이쪽은 현실이지만
저쪽은 뒤집은 현실.

시적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은 일단 거울 이쪽입니다. 이쪽은 살아 있는 얼굴이 죽음으로 연결되는 부정적 현실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거울 저쪽입니다. 저쪽은 이곳과는 반대의 현실이니까 긍정적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긍정 부정만 밝혀내도 아주 잘한 것입니다.

저쪽에는 침묵으로 말하는
신처럼 온몸이 빛으로 맑게 닦아져 있다.

거울 속은 현실과는 반대니까 침묵이고 신처럼 깨끗, 빛처럼 맑다...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에 대해 시적화자는 특별한 정서를 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있다면 좀 좋은 곳이다...정도의 정서 표출 ???

사람은 거울 앞에서
신의 사도(使徒)처럼 어여쁘게 위장하고
어여쁘게 속임말을 하는
뒤집은 현실의 뒤집은 마을의 주민이다.

거울 앞 사람이니까 부정적 현실의 사람입니다. 나쁜 동네죠...

신의 심부름꾼처럼 위장 (역시 나쁜 동네 사람입니다.)

속임말을 하고 (역시 나쁜 동네 사람입니다.)

뒤집은 현실(거울 속 = 맑고 깨끗한 신의 동네죠... 저 위에서 밝힘)

그런 것을 뒤집으면 현실이 되겠죠... 그래서 거울 앞에서 그런 쌍썬을

하는 위선과 거짓들은 뒤집은 현실(좋은 동네)의 뒤집은 마을의 주민

이다. (좋은 동네 뒤집으면 결국 나쁜, 부정적 현실의 동네다....)

바로 이 시는 거울 앞에 있는 사람(또는 현실)에 대해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는 시입니다.

거울은 맑게 닦아진 육신을 흔들어
지저분한 먼지를 털 듯, 언제나
침묵으로 말하는 신처럼 비어 있다.
비어서 기다리고 있다.

지저분한 이쪽 세상과 다르게 거울 속 세상은 지저분한 먼지를 털어
버린 맑고 깨끗한 육신이 있는 곳이고, 말이 없는 침묵의 공간이고 신
처럼 비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세상이다....

=== 시적화자는 거울 속 세상에 대해 긍정과 예찬의 정서를 보입니
다. 한편 이쪽 세상은 비판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더러운 이쪽 세상
의 육신이라도 깨끗해 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

문제는 생략합니다.

쟁판 모르는 시를 만나면 ==> 대상을 찾아라...
대상을 찾았다면 시적화자가 그것에 대해 어떤 정
서를 보이는지 찾아라.... 그리고 그런 정서를 바탕
으로 어떤 태도가 나오는지 찾으려면 된다.... 그러면
너도 모르게 네가 만점에 와 있을 것이다....